

+ 조성흠 · 아리랑국제방송 방송기술팀 부국장

오징어와 계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주조정실, 송·중계소 근무는 환영받는 보직은 아니다. 24시간 긴장해 있어야 하고 방송의 품질유지의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음에도 자부심보다는 그 업무의 고됨으로 인해 기피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상파방송사에서는 원격제어 기술 발전과 기피근무지라는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대부분의 송·중계소는 원격제어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것만 찾게 되고, 아무래도 불에 굽고 끓이는 음식보다는 냉면이나 회처럼 시원한 음식이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산 오징어는 쫄깃한 맛과 신선함으로 많은 이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임에 틀림이 없다.

오징어를 동해에서(요즘은 수온의 변동으로 서해에서 더 잡힌다고 하지만) 대도시까지 운송하려면 수조에 바닷물을 붓고 산소를 공급해 가면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데 물의 신선도와 산소공급량이 오징어 생존의 중요 포인트라고 한다. 그럼 맛은 어떨까? 동해보다 서울에서 맛보는 오징어가 흐물흐물 육질이 영 시원찮은 경우가 많다.

동해와 같은 쫄깃함이 없는 이유는? 오징어 장사들이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 편하고 산소가 충분한 수조가 아니라 수조 속에 오징어의 천적인 계를 넣는 것이다. 그러면, 오징어가 계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쫓겨 다니면서 살도 탄력이 붙고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쫄깃함이 유지된다고 한다.

수조 속의 오징어같이 우리의 삶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면하게 꾸준하면 어떤 극복되는 그런 정당한 시련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얼마 전,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도 정치세력과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 사업자 측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흠집 내거나 남의 것을 가로채도 그것을 규칙이나 법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켜주면 되는 그런 세상이다. 내가 받은 피해를 회복시키기보다는 귀찮아서, 의욕이 없어서, 나에게 그리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누가 나서지 않으니까 그저 침묵하는 대다수의 반응에 마치 자신의 탈법적인 행동이 제대로 민생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죄 아닌 죄를 우리 모두가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있었던 송신공사도 방송통제의 명분을 노린 세력과 기술인의 세력 약화를 노린 내부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기술부문 분사시도와 분사 등도 결국엔 내부 경쟁에서 인내하고 침묵했던 기술인들을 만만히 본 결과일 것이다.

PP사들도 처음 발족 시엔 대부분 내부에 기술 제작 시스템과 송출기능이 있었으나 현재는 손에 꼽을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효율화와 내부에서 기술인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견제하는 세력들의 공동의 공격대상이 되고만 것이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당한 명분과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주조정실, 송·중계소 근무는 환영받는 보직은 아니다. 24시간 긴장해 있어야 하고 방송의 품질유지의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음에도 자부심보다는 그 업무의 고됨으로 인해 기피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상파방송사에서는 원격제어 기술 발전과 기피근무지라는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대부분의 송·중계소는 원격제어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소(群小)방송사들은 송신전문엔지니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원활한 유지 관리조차도 버거운 실정이라는 현실을 자주 전해 들곤 하는 형편이다.

PP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방송품질유지의 최종 보루인 주조정실을 송출대행사라는 이유를 추구하는 회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방송사고가 발생해도 기술인들은 아무 대처도 못하고 전화통만 붙잡고 있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 실정이다. [회사에 따라선 전화를 할 기술인 한 명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을 유도한 선구자(?)들이 있지만 “나만 괜찮으면~”이라고 방관한 우리 기술인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나 둘 우리 본연의 업무를 남에게 주다보면 기술본부, 기술국이란 조직은 방송사에서 사라질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대신 △△편집회사, ○○중계회사, ◇◇송출회사라는 간판 밑에 회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운명을 선택받는 그런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아마 앞으로 탄생할지도 모를 신생 채널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일상화 될 것이다.

일련의 우려들이 우리의 현실 상황임을 모두 인식하고, 선배들은 후배님들에게 “요즘 후배들은~”하면서 물러나 있지 말고, 수조 속의 게처럼 후배들에게 쫓기하고 싱싱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대화와 노하우를 전수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업무 중의 소그룹 스테디건 저술이건, 퇴근 후의 식사자리건 다양한 모습으로 후배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함으로 다가섰으면 한다.

후배님들은 자신의 미래가 ‘△△잘하는 ○○감독’ 정도가 아닌 방송사의 CEO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주위의 모든 것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적극성으로 방송이라는 재미있는 여행을 즐기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젠 더 이상 ‘회사가? 선배가? 기술인협회가? 내게 해준 게 뭐냐~’라는 질타(회사는 월급을 줬고, 선배는 후배를 교육시켰고, 협회는 내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나를 위해서 해줬다)보다는 내가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는 기술인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협회를 통해 단결하고, 부당함을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멋진 기술인들이 되길 바란다.